

제 49 호

연중 제 31 주일

(강림후 21)

1973. 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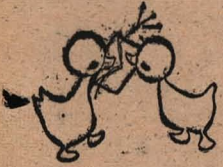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목 상 ◎

겨울 문전에 서면

임 성 숙



겨울 문전에 서면

봄, 여름, 가을. 무지고 번거롭던 잔치가 막을 내린다.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한다.

한동안 까맣게 잊었던 고향에 돌아갈 재비를 서둘른다.

오랜 방황에서 고달팠던 우리들 영혼이 편히 쉬기를 갈구(渴求)한다.

푸른던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내리듯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
 살(肉)은 흙속에 굳히 잠재우고
 영복을 누리러 고향에 돌아가려한다.

연옥(煉獄)문을 지날 때
 하늘문을 두드릴 때
 스스로 쌓아올린 기도소리 들린다.
 사무치게 반치는 연도소리 들린다.

외롭지않게
 두렵지않게 신한 싸움 마치고
 우리들 영혼은 고향에 돌아가려한다.

(원자: 시인, 경향잡지 73년 11월호에서)

✽이주일의 미사 ✽

□**입당송**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주여, 이 몸을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 구원이시여, 어서 나를 도와 주소서.

□**제1독서** (신명기 6:2-6, 경향잡지 11월호 P.20)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라.

□**찬가송** ◎하느님 내 힘이시여, 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고지 없이 사랑하나이다. 하느님 내 힘이시여, 하느님은 나의 반석, 나의 성체, 내 구원자시오니. ◎

□**제2독서** (히브리 7:23-28, 성서 P505)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에 그의 사제직도 영원하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따르라.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너를 찾아 오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2:28-34, 성서. P107)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신자들의 기도

1. 자애로우신 주여, 먼저 자신 우리의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굽어 살피시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만민의 아버지이신 주여, 특별히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무도 기억해주는 이 없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3. 우리의 스승이신 주여,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죽은 이를 기억하는 이 위령성월에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묵상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항상 부끄러움 없이 살아 두려움 모르고 뉘뉘이 살게 인도하소서. ◎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퍼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쁨을 보여 주시리이다.

* 숲정이 산책 *



-11월은 위령의 달-
 당신도 머지않아 죽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축도 (日常生活縮圖)

김영구 신부

배운 것을 틈틈이 되풀이해 익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요, 친구가 먼 데서 찾아 와 주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지요, 남이 알아 주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역시 군자(君子)겠지요. (子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아무리 배운들 생각지 않으면 흐리멍덩하고 아무리 생각한들 배우지 않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옛 일을 찾아 보고서 새로운 일을 깨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그것이(아는)일이다. (논어)

누구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친구의 협조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격의 완성을 기하지 못한다. 친척과 화목하고 현인을 벗삼으며, 옛날 친구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의 덕은 돈후하게 되는 것이다. (시경)

철석(鐵石)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깨어지기 쉽다. 그러나 물은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져도 깨어지는 법이 없다.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부드럽고 연한 까닭이다. 저 풀짜기에 흐르는 물을 보라!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즐기치게 흘러드러오는 바다에 이른다. 적응하는 힘이 자재로워야 사람도 그가 부닥친 운명에 굴센 것이다. (노자)

자기 자신을 존중함과 같이 남을 존중하며, 남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 그것을 남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할수 있다. (논어)

세가지 길에 의해서 우리는 예지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색의 길인데 이것은 가장 고상한 길이다.

두째는 모방의 길인데 이것은 가장 쉬운 길이다.

세째는 경험의 길인데 이것은 가장 괴로운 길이다.(논어)

아무리 적은 것도 이를 만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노력과 배움, 이것 없이는 인생을 밟힐 수 없다. (장자)

천리의 뚝(塹)도 개미의 구멍으로써 새어나고 백길(百丈)의 큰 집도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는 연기로서 불탄다 (회남자)

산중의 적은 무찌르기 쉬어도, 심중의 적을 무찌르기는 어렵다. (왕양명)

천지는 만고(萬苦)에 있으되 이름은 두번 있지 못하나

니, 인생은 다만 백년이나 이 날이 가장 가버리기 쉽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몸이 살아 있는 즐거움을 알지 아니치 못함이며 또한 헛되이 사는 근심을 품지 아니치 못하리라! (채근담)

비금주수(飛禽走獸)는 생래(生來)의 지혜로 날고 기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거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지혜가 새나 짐승에 미급할 리가 없다.

보라! 천지는 조용한 기운에 차 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해와 달은 주야로 바뀌면서 그 빛은 천년, 만년 변함이 없다.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적막이 있다.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다. 사람도 한가하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며 한가한 때일수록 장래생(將來生)에 대비해 삶이 좋다. 아무리 분주할 지라도 여유있는 일면을 지니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 더 강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돈과 지위와 명예를 행복이라 하지만 그 중에도 번다한 일 없고, 사고없이 평온하게 사는 것이 큰 행복이다. 또 불행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람에게 따라 그 경우가 천차만별이다 그중에도 가장 불행한 것은 마음이 사방으로 산심(散心)되어 잡귀를 못잡는 것이다. 내 마음을 한군데에 여미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전주시 교동 1가 132-4)

* 이 주간의 성경 *

- 5(월) 독서 (로 마 11; 29-36, 성서 P.361)
복음 (루 가 14; 12-14, 성서 P.170)
- 6(화) 독서 (로 마 12; 5-16, 성서 P.362)
복음 (루 가 14; 15-24, 성서 P.170)
- 7(수) 독서 (로 마 13; 8-10, 성서 P.363)
복음 (루 가 14; 25-33, 성서 P.171)
- 8(목) 독서 (로 마 14; 7-12, 성서 P.365)
복음 (루 가 15; 1-10, 성서 P.171)
- 9(금)※ 라메라노 대성전 축성
독서 (고린트전서 3: 9-17, 성서 P.375)
복음 (마태오 5: 23-24, 성서 P.9)
- 10(토) 독서 (로 마 16; 3-27, 성서 P.369)
복음 (루 가 16; 9-15, 성서 P.174)

☆ 교우들의 살림 센터 ☆

전라 종합 전자 상사

T.V. 팔통

다목적 전기기술 등

● 성모병원 옆(영화 예식장 자리)

전화 ㉠ 2757

조 윤 회(베드로)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중앙성당 앞

전화 ㉠ 6794

이 현 주(메레사) 올림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T V
냉장고
석유스토브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 8121

여요셀(운창)

□ 양 지 쪽 □



그전 너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밤에
어이해 나홀로 잠 못 이루나
넘기는 책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해 한자도 띄이질 않나
그전 너, 바로 너, 그전 너 때문이야.
그전 너, 바로 너, 그전 너 때문이야」

요사이 모 방송국의 인기 가요 랭킹에 오른, 이 모군이 작곡과 작사는 물론 노래까지 부른 소위 히트(?)송이다. 책속의 글들이 한자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고, 비를 맞으며 쓰다니다가 동창생한테서 미친놈이란 말을 듣고 한 것이 모두 너 때문이다. 종일토록 전화 번호판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겨우 통화는 되었는데도 네가 끊어버려 바보처럼 물어버린 것도 바로 너 때문이다 하는 가사말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깊이 새겨보면(당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애끓는 사연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런데 어쨌게 얼핏 들으면, 모든 것이 잘 안되는 이유는 모두 너 때문이라고 푸념(원망?)을 늘어놓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여기서 그 진의를 따지자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다만 「그전 너, 바로 너, 그전 너 때문이야」라는 그 말마디만 생각해보기로 한다.

창조의 이야기나.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만다 이에 대한 하느님의 꾸중에 아담은 「당신이 주신 여인이 따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주는 바람에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댈다. 예와 역시 「뱀이 저를 꾀어 먹게 하였읍니다.」고 이유를 댈다. 자신의 책임이라는 문제는 한마디도 없다. 전부 다른 이의 탓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더라도, 우리들은 「잘못」에 대하여서는 제 책임으로 겸손하게 고백하기 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반드시 남을 몰고 들어가는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잘된 일은 항상 제가 잘해서 그리된양 말한다.

우리들은 기도를 바칠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타이로소이다.」라고 곧잘 겸손손이(?) 고백한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은 그렇게 말로 기도할 때뿐인것 같다.

잘못된 일은 남에게 그 탓을 돌리기 보다는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잘된 일은 오히려 그 공을 받기에 합당한 이웃에게 돌려야 한다.

여기에만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다.

(갑)

요십이 (16) 金炳午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③3498)

- 6일(화) - 7시반 성경교실
- 8일(목) - 7시반 지성인 교리
- 9일(금) - 8시 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외국 문화교실; English Conversation

11월 5일~9일 매일 7시

독어; Heiderose; 화, 목 6시

Morgentau; 월, 수 6시

* 알 림 *

교회와 사회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가톨릭 센터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외에, 바람직한 복지 문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을 찾고 있어오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부디 저희를 좀 도와 주십시오.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프랑스 제과

* 임금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찻집 ⑤5013

김원준(야고버)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래토프



(임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⑦692(진북동 어은골)

노루표 페인트 전북대리점
<도장공사 전문>

대한도료상사

● 중앙성당 정문 옆
전화 ④-4874

김영구(디도)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 제4지구 (전주 지구) 성년 행사 안내 ◎
 전주지구 제1차 성년행사 계획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으니 모든 교우들은 이에 적극 협조,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제4 지구장 김영일 신부

- 아 래
1. 「말씀의 광장」 (11월 12일 <월>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주제 「화해의 성년」
 2. 「순회 행사」 (가을 판공 성사를 결합)

배	성당	미사 집전 사제	강론사제	고백 성사 집행 사제 (미사 시간 중)
19(월)	복자	오기순, 합승천, 유장훈	유장훈	김영일, 김종택, 안복진, 범석규, 문정현, 박진량
21(수)	서학동	김영일, 범석규, 박진량	유장훈	오기순, 김종택, 안복진, 합승천, 문정현
23(금)	노송농	합승천, 김종택, 박진량	박진량	오기순, 김영일, 안복진, 범석규, 합승천, 문정현, 유장훈
26(월)	중앙	안복진, 합승천, 유장훈	박진량	오기순, 김영일, 김종택, 범석규, 문정현
28(수)	전동	범석규, 오기순, 박진량	박진량	김영일, 김종택, 안복진, 합승천, 문정현, 유장훈
30(금)	덕진	김종택, 김영일, 안복진	유장훈	오기순, 범석규, 합승천, 문정현, 박진량

①고백성사 (오후 7시-8시반) 제4지구 및 특수 사목 (성심, 센터, 해성)담당 신부 전원. ②미사 (오후8시반)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새로 임명된 구역장님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구역 회장 임명 (협조 바랍니다.)
진북 1동 1구(조정례), 2구(장순례), 진북 2동 1구(김귀권), 2구(서정태)태평 1가1구(진병기), 2구(하정호), 태평2가(원종삼), 서노 1구(원현식), 2구(이두만), 경원 1구(김진주), 2구(허용자), 중앙, 고사(장남수), 중노(임양옥)금암 1구(정만덕), 2구(김순옥), 인후 1구(최성환), 2구(하정남), 서신1구(유근하), 2구(이정일)간중리 공소(이봉준), 상운리 공소(이중업), 전매정(김후순), 성심학교(이덕우), 해성 학교(김성원)
3. 꾸리아 월례회 (10일 <토> 오후 3시)
4. 매회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집합 요망)
5. 성년 가정방문
성년을 계기로 본당 교우 상호간의 화해와 우정을 위하여 브레시디움과 구역간의 결연을 맺고자 신부님 주관하에 가정 방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5(월)-서신(매피의 모후). 6(화)-금암(사랑하오신 모친). 7(수)-인후(인자하오신모친, 찬송하울정녀). 8(목)-진북2동(우리즐거움의 연유). 9(금)-진북 1동(하늘의 문). 10(토)-고사(상아 보탑). 12(월)-태평1가1구(셋별). 13(화)-태평1가 2구(증거자의 모후). 14(수)-중노(농하신 정녀). 15(목)-서노 2구(사도의 모후). 16(금)-경원(평화의모후). 17(토)-서노 1구(몽소승천 성질하신 정녀)
□교무금 신입액 2,257,950원 목표액의 70%
아직 신입 안하신 분은 금주내에 완결을 지으시라.
지난 주일 봉헌금 34,567원, 감사합니다.

(노송농)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3. 애령회 정기총회 (다음 주-특별 현금 있음)
 4. 가을 판공 성사 (11월 23일)
 5. 학생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 ※ 해성 (ANGEL) 쉼 장미를 축하 합니다.
□ 신축 성미 2말 (누계 83말)
지난 주일 봉헌금 11,70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미사 시간 변경
주일-10시, 오후 4시, 7시반.
평일-월·수·금(6시), 화·목·토(오후7시반)
2. 사도회 확대회의 (다음 주일로 연기)
3. 가을 판공 (11월 30일 <금> 하루 뿐)
※ 본당 살림 살이에 대해서도 경직 해주세요.
●에도의 뜻을 포함한다. (전당리 권순열씨 1일 출상)
□지난 주일 봉헌금 5,445원, 감사합니다.
※ 조금만 더하시던 배가가 되겠습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게시판 참조)
2. 신용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교육
①11일 공식 미사후와 저녁미사후 12·13일 저녁 미사후
②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음.
3. 교무금 수입을 수일내로 양심껏 끝냅니다.
4. 가정마다 위령미사 불침하기
위령 성월을 뜻있게 지내기 위하여 가정마다 11월중에 미사를 봉헌 합니다. (부모 형제들과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5. 사제 양성비는 제달에 냅시다.
□지난 주일 성미 2말 (누계 210말 5회)
지난 주일 봉헌금 12,136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최상익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2. 가을 판공 성사 (11월 19, 20, 21, 24일)
①21일 (수) 합동 순회 행사 많이 참여 하십시오.
②성사표는 18일까지 찾아 가지오,
③누락자는 24일에 성사 보십시오.
3. 자모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9,327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7시 미사후)
2. 자모회 추계 소풍 (11월 7일, 내장산-회장에게 산입 바람)
3. 학생회 월례회 (다음 주일 11시, 사제관)
※ 김후만씨 성당 주변에 식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무금 신입 현황 1,303,000원 (167세대)
부녀부 성금 누계 백미4회, 현금 51,76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2,375원, 감사합니다.